

# ‘수십조 피해’ 원전사고 국민이 책임지는 한국

## 한빛원전 재앙엔 최대 17조원...한수원 부담 5000억 뿐 日·獨 무한책임...“사고 억제노력과 밀접...책임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사고시 운영사(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범위가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 이후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개인과 법인에 피해 배상한 금액(75조원)과는 대조적 격차다.

원전 사고시 사업자의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규정할 일본과 달리,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원전 사업자 책임범위를 원전 사고시 5000억원 이내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결국, 사고 책임을 져야 할 원전 운영사는 5000억원만 책임지고 수백조원의 피해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승준 일본 관서학원대 모의실험 결과(2012년), 영광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7조원, 체르노빌(1986년) 원전사고 수준의 경우 최대

45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쿄전력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발생부터 현재까지 배상한 금액은 7조 4533억엔이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75조원을 웃도는 배상 규모다. 도쿄전력은 사고 후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각각 46만3000건, 130만8000건의 배상청구를 받아 이 가운데 법인 39만9000건, 개인 129만5000건을 배상해줬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5000억원 한도로 책임만 지면 된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원전 사업자에게 원전 사고 한 건 마다 5000억원 범위 내에

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위스, 일본이 원전 사업자 배상책임한도를 ‘미설정’해 사실상 무한책임 지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은 손해 발생을 대비해 보험 가입을 통해 기본 배상액을 충당하고 배상액을 벗어남은 사업자 자산을 매각해 보상하는 무한책임 구조라고 박정 의원은 설명했다.

원전 사고 발생시 원전 운영사에게 무한책임은 묻는 것은 피해 대부분을 국가나 국민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넘어 원전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도 밀접하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전사업자의 사고 억제 노력을 사실상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은 자율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원전 사업자가 원전 설비 검사를 강화하고 부품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원전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박정 의원은 “원전 사고시 국민 손해를 사실상 무한책임지고 원전 운영사의 안전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배상을 유한책임지도록 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무한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박승준 일본 관서학원대 부교수가 발표한 ‘영광, 고리 핵발전소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할 경우, 집단 피폭이 최대 74만 명, 급성 사망이 5784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8708명, 유전 장애가 6563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규모의 대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 피폭이 최대 1249만6000여명에 이르고 급성 사망이 1만2228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55만692명, 유전장애가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규모의 경우 최대 24조원,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450조원이 예상됐다.

김정희기자 khk@kwangju.co.kr



온정 나누는 계절 ‘사랑의 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회원들이 12일 광주시 북구 임동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을 만들고 있다. 빵은 광주지역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어금니 아빠’ 변태 성욕자? ...휴대폰에 성매매 의혹 영상

### 자택서 성인용품 다수 발견...경찰, 얼굴 공개키로

경찰이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정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성매매 의혹이 담긴 음란 동영상 다수 소유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의 소유자였다.

경찰은 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나오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CCTV 등으로 몰래 촬영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씨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색한 이씨 자택에서는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초 자택에서 투신해 숨진 아내를 염하는 과정에서 아내 시신에 수차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 아내가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유서에는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딸을 시켜 친구 A(14)양을 지난달 30일 오후 12시20분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다음, 잠든 A양을 이튿날 정오~오후 1시44분 사이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A양이 잠든 후에도 무려 24시간 가량이나 지난 다음에 살해한 점을 봤을 때, 그가 A양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7 해질 18:00  
달출 14:01 달짐 14:01

완연한 가을 북서쪽의 찬공기가 유입돼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0/20	보성	맑음	8/20
목포	맑음	11/20	순천	맑음	11/22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8/19
나주	맑음	8/20	진도	맑음	11/20
완도	맑음	12/21	전주	맑음	8/19
구례	맑음	7/21	군산	맑음	8/20
강진	맑음	9/21	남원	맑음	6/20
해남	맑음	9/21	축산도	맑음	14/17
장성	맑음	8/1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	북~북동	1.5~2.5	북~북동	1.5~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북동	1.0~2.5
	면바다(서)	북~북동	1.5~3.0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37	07:40	12:48	20:38
여수	간조		만조	
	08:42	02:27	22:26	15:43

◇주간 날씨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	☀	☀	☀	☀	☀	☀
13/22	13/22	14/21	12/22	12/22	11/22	11/21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욕’ 순천대 교수 파면

순천대학교가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순천대학교는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A 교수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징계는 징계결정을 수령한 총장이 집행한다. A교수는 지난 4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것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가 따라다니 거야”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 처리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 처리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 처리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 전남도, 오염물질 배출 위반 34건 적발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등 신고 미이행 5건,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기타 25건 등이다.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중대위반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동식 전남도 환경국장장은 “특별감시에 적발된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 중합상향실을 운영해 취약업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84개 주요 하천 순찰활동을 벌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